

* 마을사 *

신통리·新通里

도고면의 한 마을로 1리인 통미와 2리인 삼시리 두 마을로 나뉘며, 호구수는 86호가 살고 있으며 인구는 총 320명에 이르며, 주민 모두가 완전히 농업에 의존해 있으며, 주로 벼농사를 많이 한다. 신통리는 신창군 남하면의 지역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신상리, 통산리를 병합하여 신통리라 하여 아산군 도고면에 편입되었다.

<신통리 위치도>



⊗ 통미, 삼시리 마을(신통리)

신통 1리는 통미 마을이라 하며, 통미 마을은 뒷산은 소가 누운 형국이며, 소가 밥을 먹으려면 먹을 곳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빠들과 구수샘이라는 들이고, 먹이를 담아주는 통을 따 통미라 부르며, 빠들은 통미 마을 앞에 있는 들을 가르치는 말이며, 구수샘은 빠들의 한복판에 있는 샘을 가르친다.

신통 2리는 안삼사리, 중간 삼시리, 바깥 삼시리(통미) 합쳐서 삼시리라 불리게 되었으며, 삼시리 마을은 두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집이 세 개였는데 한 마을에는 세 마을 뿐이라 삼시리라 부른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옛날에 삼시리를 크게 세 곳으로 나누었을 때 그 각각의 작은 마을에 과일나무가 하나씩 있었다고 해서 불려졌다는 설이 있다.

<조사당시 신통리 마을 관련 사진>



1) 위 치

통미 마을은 위도 36-46-10, 경도 126-53-30인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온양 온천역에서 예산 방면으로 난 국도 21호선을 따라 한치고개를 넘어서 따라가면 용호원 앞에 삼거리에서 국도 102호선 가장 깊숙히 자리잡은 마을이다.

삼시리 마을은 통미 마을에 도착하기 전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2) 현 황

통미 마을의 인구분포는 남 73명, 여 50명으로 총 123명이며, 호구수는 41호가 살고 있으며 100%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삼시리 마을의 인구분포를 보면 남 110명, 여 87명 총 197명으로 호구수는 45호 이르며, 100%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두 마을 모두 여자들이 적다.

- 인구 현황

구 분 마 을 명	계	남	여
통미 마을	123명	73	50
삼시리 마을	197명	110	87

- 생 업

구 분 마 을 명	계	농 업	축산업
통미 마을	100%	100%	-
삼시리 마을	100%	100%	-

통미 마을은 농경지가 논 18.9ha, 밭 9.1ha로 조사 되었고, 농경지가 삼시리 마을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며, 농기계 현황을 보면 경운기가 8대로 조사되었고, 문화시설도 앰프시설을 갖추어진 마을회관 1개소 있고 그곳에 농악기구들도 있다.

삼시리 마을은 농경지가 논 38.3ha, 밭 24ha로 농기계 현황은 경운기 24대, 이앙기 11대, 관리기 5대, 콤팩트 1개, 트랙터 5대로 조사되었고, 문화시설은 앰프시설이 갖추어진 마을회관 1개소와 그곳에 농악기구들이 구비되어 있다.

- 농경지 현황

구 분 마 을 명	계	논	밭
통미 마을	28ha	18.9ha	9.1ha
삼시리 마을	62.3ha	38.3ha	24ha

- 문화시설

구 분 마 을 명	계	마을회관	기타문화시설
통미 마을	1개소	1개소	-
삼시리 마을	1개소	1개소	-

통미 마을의 성씨별 현황을 보면 풍산 심씨가 29%, 김씨 27%, 이씨 15%이며, 연령별로 보면 20대~40대 젊은층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삼시리 마을의 성씨별 현황을 보면 김씨 33%, 고씨 11.1%, 오씨, 최씨 8%로 주된 성씨를 이루며, 연령층은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성씨별 분포 현황

구분 마을명	계	이씨	김씨	심씨	최씨	고씨	유씨	기타
통미 마을	41호	6호	11호	12호	2호	-	-	10호
삼시리 마을	45호	4호	21호	-	5호	7호	-	7호

- 최고령자

통미 마을의 최고령자는 심 용기씨로 89세이며, 삼시리 마을의 최고령자는 84세의 오 주영씨이다.

3) 자연경관

통미 마을은 길을 따라 아래쪽은 전부 논이며, 길 위쪽은 산이며, 그 집사이에 집들이 있으며, 집 사이사이에도 하우스와 밭이 많고 특히 하우스에 수박을 많이 재배하고, 마을 뒤쪽에는 힘있게 생긴 큰 상산이 버티고 서 있다.

삼시리 마을은 방앗간을 시작으로 마을이 펼쳐지는데 산으로 둘러 싸여 있고 경사진 곳이 들쭉날쭉 하며, 마을 길이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벼농사가 많고 수박농사도 가끔 눈에 띈다. 마을 끝엔 덕수 농장이란 곳이 있는데 그곳에 나무가 많고 때밭도 있으며 하우스도 많다.

4) 마을 변천 과정

본래 신창군 남하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신상리, 통산리를 병합하여 신통리라 하여 아산군 도고면에 편입되었고, 1970년 후반에 방앗간을 경계로 두 구로 나뉘어 삼시리가 되었다.

5) 입 향

통미 마을은 최초 원거인은 파평 윤씨로 그 다음이 풍산 심씨가 15대째 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서기 1500년경 대략 500년전 마을이 형성된 것으로 추측되며, 심씨가 가장 많이 살고 있다.

삼시리 마을은 현재 주로 제주 고씨와 광산 김씨가 살고 있으며 고병기씨가 7대째 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서기 1750년경 약 210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측되고 옛날에는 고씨 집성촌이었으나 5가구만이 살고 있다.

6) 지 명

十 통미 마을의 지명

- 새터 : 통미 북서쪽에 새로 된 마을로 새로 된 마을이라 하여 새터라 함.
- 상산 : 마을 뒤의 큰 산으로 높을 상자를 써서 상산이라 함.
- 박삭골 : 통미 뒤에 있는 깊은 골
- 가갓골 : 판곳엔 없는 가재가 많다하여 가갓골이라 함.
- 빠들 : 신통리 앞에 있는 모든 들을 통틀어 부르는 말.
- 갯걸 : 새터앞에 있는 들.
- 통미 : 지세울 남쪽에 있는 마을로 산이 작고 둥글다 하여 동미라 하였는데 변하여 통미라 부름. 신통리 뒤의 외딴 산을 통미라고도 함.
- 통뫼 : 신통리 뒤에 있는 외딴 산.

十 삼시리 마을의 지명

- 진득이(진동) : 마을로 넘어오는 아주 긴 길 .
- 골삼시리 : 삼시리 중 고랑진 아주 작은 마을
- 안삼시리 : 삼시리 안쪽에 있는 마을
- 안산뜸 : 안삼시리 맞은편 산너머 몇가구가 있는데 그곳을 안산뜸이라 부름.
- 바깥삼시리 : 삼시리 바깥쪽에 있는 마을.
- 삼시리 : 통미 동쪽에 있는 마을. 이 마을에 세집이 있어서 삼실이라 했는데 변하여 삼시리라 함.

7) 전 설

十 통미 마을의 전설

마을 앞에 우뚝 솟아 있는 산이 통산이라고 하니 남쪽을 등진 도고산이 있어 서쪽을 방어하고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마을 후원에는 이른바 우와형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글자 그대로 소가 누워있는 형이라는 것이다.

평야 한복판에는 구수샘이 있었는데 현재는 논을 늘리려고 샘을 메우고 다음부터 마을에 초상이 자주 나고 현재 와서는 소의 죽통이 구멍 뚫렸다는 것이니 마을 주민들이 차차 전답을 팔아먹고 마을이 빈색해지며 마을 앞에 보이는 들판이 소가 풀을 뜯어 먹는 풀밭이었다고 전하며, 그래서 통미로 불렸다고 전한다.

十 심산부 스님의 일화

충청남도 아산군 도고면 신통리 높은 산에 조그마한 암자가 있었다. 이 암자에는 도술이 뛰어나 앞일을 훤히 내다 보는 심산부라는 대사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암자는 너무 좁고 낡아서 다시 지으려고 했다. 어느날 도사는 산 아래의 마을로 내려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 내일부터 암자를 새로 짓는데 택의 소를 하루씩만 빌려 주십시오"하고 청했다. 마을 사람들은 한명도 거절하지 않고 도사에게 소를 빌려 주겠다고 약속 하였다. 도사는 너무도 감사하여 인사를 잊지 않고 "그럼, 내일 아침 일찍 소를 가지러 소승이 오겠으니 새벽에 소를 배불리 먹여 길마를 지은후 마당에 매어 주십시오"라고 일러두고 가버렸다. 이튿날 새벽, 그 마을의 최서방은 도사의 말대로 소를 배불리 먹여 마당앞에 매어놓고 도사가 데려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한마절이 지나도 도사는 소를 데려가지 않았다. " 분명히 아침 일찍이 소를 쓰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중얼거리며, 또 한나절을 기다렸으나 저녁때가 되도록 소는 그대로 마당에 매인 채 잠만 자고 있었다. 어느덧 해는 서산을 넘어가고 마을에는 어둠이 찾아들어 최서방은 도사를 기다리다 못해 소를

들여다 매느라고 소 고삐를 풀고 자는 소를 깨웠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하루종일 걸음 한번 견지 않았던 소 잔등에는 땀이 흠뻑 젖어 있었고 소는 지쳐 있는 것이었다. 최서방이 이상한 마음으로 소 잔등의 땀을 씻어주고 집안으로 끌고 들어 가려는데 도사가 나타났다. "소를 빌려 주셔서 고맙게 잘 썼습니다. "하며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 아니 도사님! 소는 오늘 진종일 잠만 자고 있었는데 언제 데려 가셨단 말씀입니까?" 그러자 도사는 꺾꺾 웃었다. "소의 몸뚱아리를 쓴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빌어 쓴것이죠" 최서방은 무슨 뜻인지 잘 알수 없었으나 소가 땀을 흘린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도사는 다른 집의 소도 이런 방법으로 빌어썼다. 그 후 어느날이었다. 마을의 어린 소년들이 산속에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도사가 나타났다. " 애들아! 너희들에게 할 일이 있다. 내일도 나무하러 오너라. ""왜요?" "내일 이맘때쯤 이 곳에 어떤 스님이 한 분 지나갈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서 무엇을 일러 주는 것이었다. 어린 소년들은 도사의 말을 다소곳이 듣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고 돌아갔다. 도사가 일러준 시간이 되니까 과연 스님 한 분이 등에 바랑을 매고 큰 갓을 쓰고 올라오고 있었다. " 애들아! 저기 스님이 올라온다."하고 한 아이가 소리치므로 모두 그 쪽을 바라보며, " 정말 저기 온다. 틀림없이 어제 도사님이 말씀하신 그 스님이야." 이렇게 소리치고 소년들은 스님의 앞길을 막아서서 도사가 일어준대로 낫을 휘두르며 소리쳤다. " 네 이놈! 게 쫓겨라!" 별안간 습격을 당한 스님은 깜짝 놀랐으나 태연하게 "너희는 누군냐? 아무리 아이들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버릇 없는 것이 어디 있어?"하고호통치니 아이들도 시침을 떼고, "넌 중으로 가장하고 우리나라를 염탐하여 온 놈이니 너의 정체를 밝히게!"하면서 더 사납게 대들었다. "뭐야?" 스님은 정체가 드러나자 날 살려라하고 도망치는 것이었다. 스님을 놓친 아이들은 하는 수 없이 돌아갔다. 한편, 그 스님은 산밑에까지 내려와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다 다시 산으로 기어 올랐다. 암자 근처까지 온 스님은 날이 저물어 더 걸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암자에 와서, "스님, 계시옵니까? 지나가는 중이온데 날이 저물어 하루 묵어 갈까 합니다. "하고 청하니 대사가 나타났다. 대사는 스님을 공손히 안으로 맞아들였다. 조금후 몇마디를 대사가 하자 중은 자기의 정체가 발각된 것을 짐작하고 도사를 칼로 찌르려 하자 어느새 보았는지 개가 번개같이 중에게 달려 들었다. 아악! 소리를 지르며 중은 비수를 떨어뜨렸다. "네 죄는 마땅히 목을 베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내 네 목숨을 가엾게 여겨 살려 보낼 터이니 양심이 있거든 네가 하던 짓을 거두고 이곳을 떠나거라!"하고 호령하니 그 중은 벌벌 떨며 비수로 자기의 귀를 잘라 도사 앞에 놓고 그곳을 떠났다. 대사는 이렇게 하여 많은 일본 첩자들을 알아내어 나라의 위험을 막아준 분이였다 한다. 신통리에 있는 심산부 대사의 비석은 비바람에 깎여 알아볼 길이 없다. 그리고 그 암자가 지금은 흔적없이 사라졌다 한다.

8) 전통놀이 및 대표적 집단행사

통미 마을은 10월에 심씨 시제를 지내고 있으며, 55년전에는 마을 뒷산에서 산신제를 지냈으나 현재는 없어졌고, 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계는 없지만 애경사시 서로 상부상조하고 있다.

삼시리 마을은 대동계를 운영하고 애경사시 서로 돕고 살고 있으며, 40~50년전 위친계가 있어 초상시 서로 돕고 살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고 없고, 쌀을 걷어 상을 당했을 때 주는 계이고 상포계는 초상시 삼베를 주고 있다.

9) 특별하게 소개할만한 인물

十 심구령(沈龜齡: 이조) : 태종조에 좌명공신으로 책록되고 풍산군에 봉해졌으며, 벼슬은 정헌대부에 이르렀다. 익호는 靖襄公이며 不爨廟를 명하니 아산군 도고면 신통리에 그 묘가 있다 <朝鮮纂輿勝覽>

10) 종교단체

통미 마을은 사천왕사라는 절이 있고 삼시리 마을의 불교 신자들은 신창 인취사와 삼덕사로 다니고, 기독교 신자들은 도고온천으로 다닌다.

11) 공장현황

통미와 삼시리 마을은 공장은 없지만 통미 마을에는 한국전기 안전공사 교육원이 있어 전기안전교육 및 실습을 위주로 하며 전국 전기 안전 공무원들을 교육 시키는 곳이다.

12) 마을의 특징

통미 마을은 30년전만해도 도고면에서 가장 부촌이라 불리웠고, 지금은 전 주민이 농사에

완전한 생업으로 삼고 있으며, 주로 수박을 심고 있으며, 마을에는 큰 느티나무 정자가 있어 마을 사람들의 쉼터가 되고 있고, 삼시리 마을도 농업을 생업으로 하고 있으며, 특수작물로 담배를 20호가 심고 있고, 벼농사도 많이 한다. 마을은 시골마을로서 아직도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으며, 정이 넉넉하다.

삼시리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로서 완전히 농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으며, 통미 마을보다는 농경지가 많고 주로 벼농사를 많이 짓고 수박농사도 약간씩 짓고 있으며 시골 마을로서 아름다운 정경과 정이 넘치는 마을이다.